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eanne Lanvin's Design

이진민

신구대학 섬유·의상코디과 전임강사

Jin-Min Lee

Dept. of Textile & Clothing Coordination, Shingu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2. 연구문제 및 방법

2. 잔느 랑방의 생애와 작품세계

- 2-1. 잔느 랑방의 생애
- 2-2. 잔느 랑방의 작품세계

3.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 3-1. 낭만적 단순미
- 3-2. 이국미
- 3-3. 실험적 장식미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랑방 패션 하우스의 창립자이자 1920~30년대 남다른 예술적 가치와 디자인 감각을 표출했던 잔느 랑방의 생애를 돌아보고 작품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랑방은 1889년 모자 매장을 개점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시작하였으며, 상류층 고객의 자녀를 위한 아동복 라인을 디자인하였고, 이후 여성복 오프 꾸뛰르를 오픈하면서, 20세기 전반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랑방의 작품세계를 그녀의 생애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랑방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는 비딩과 자수를 이용한 화려한 표면 장식과 이에 대비되는 심플하고 고전적인 실루엣,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국적 취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 영감의 활용, 그리고 '랑방 블루'로 대표되는 독창적인 색의 사용 등이 고찰되었다.

이를 토대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모던하고 심플한 실루엣 위에 더해진 섬세하고 화려한 표면 장식은 낭만적 단순미를, 에스닉한 민족학적 감성과 중세 카톨릭 종교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부터의 이국미, 랑방 디자인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장식 표현의 경향, 곧 직물 자체를 이용한 실험적 장식미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잔느 랑방, 오프 꾸뛰르, 미적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eanne Lanvin who founded the fashion brand "Lanvin" and expressed an artistic value and a unique sense of fashion design during the period of 1920-30s.

Lanvin started her special and original design by opening millinery at 1889. She designed children's collection for upper-class customers' children and showed a vigorous activitie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by opening haute couture for women's wear.

In this study, Lanvin's design work was examined by dividing her work into early, middle and last periods. As a result, the identity of Lanvin's design can be defined as (1) splendid surface decoration based on the use of beading and embroidery, (2) simple and classical silhouette, (3) a variety of design inspiration based on exotic taste of art and culture, and (4) the use of creative colors represented by 'Lanvin blue'.

Based on these examinations, it can be suggested that in Lanvin's design work delicate and splendid surface decoration added to modern and simple silhouette showed romantic simplicity, and that design inspired by ethnographic sense and medieval catholic expressed exotic beauty. Also, Lanvin's new & experimental decoration trend to use textile and fabric itself was discussed, which was found in the last period of Lanvin's design.

Keyword

Jeanne Lanvin, Haute Couture, Aesthetic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패션 하우스 '랑방(Lanvin)'은 1889년 파리의 작은 모자 가게에서 출발하여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및 향수와 액세서리 라인을 거느린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창립자 잔느 랑방(Jeanne Lanvin)의 사후, 그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한 여러명의 디자이너들이 랑방을 이끌어 왔으며, 2001년부터 랑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앨버 알바즈(Alber Elbaz)는 전통의 랑방 하우스를 보다 젊고 창조적인 이미지로 정착시키며, 21세기 랑방 브랜드의 제 2의 전성기를 이끌어내었다. (Jones, T. & Rushton, S.(Eds.), 2005)

랑방 하우스의 창립 12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디자이너 랑방의 창작 활동을 재조명하고, 디자인을 통해 표출된 미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세계와 디자인,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오프 꾸뛰르 디자인 또는 프랑스 디자이너들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거나(채금석, 1995), 패션 브랜드의 혁신과 현대화에 관한 연구(이혜연, 2005; 박주희, 이진민, 2010)에서 2, 3세대 디자이너에 의한 패션 하우스의 브랜드 계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랑방에 대한 짧은 고찰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랑방 패션 하우스의 창립자이자 1920~30년대 남다른 예술적 가치와 디자인 감각을 표출했던 잔느 랑방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녀의 작품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패션 디자이너와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복식이라는 조형물 속에 표현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그 내면의 의미를 유추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창의성 및 예술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전통의 패션 하우스가 가진 미적 특성과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계승과 현대화의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박주희, 이진민, 2010), 랑방 하우스를 이끌었던 잔느 랑방의 디자인 고찰을 통해 21세기의 랑방 브랜드와 디자인을 이해하고 영감을 얻으며, 그 미적 특성과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국내 패션 디자인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축적의 기회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잔느 랑방의 생애와 시기별 작품세계를 고찰한다.

둘째, 작품 세계 고찰을 통해 나타난 잔느 랑방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 분류하고 미적 특성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패션관계 문헌연구 및 컬렉션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 인터넷을 통한 패션 정보 검색 등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자료 및 정보 검색을 통한 자료를 중심으로 잔느 랑방의 생애와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경향을 고찰하였고, 시각 자료는 그가 발표했던 작품들 중 여성복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일부 아동복 컬렉션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잔느 랑방이 모자 가게를 열고 파리 패션계에 입문한 1889년부터, 1946년 사망할 때까지로 하였고, 잔느 랑방 사후 새로이 영입된 다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의한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 잔느 랑방의 생애와 작품 세계

2.1. 잔느 랑방의 생애

잔느 마리 랑방(1867~1946)은 1867년 1월, 저널리스트였던 아버지 베르나르 랑방의 외동딸로 파리에서 태어나 아홉명의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녀는 16살이 되던 해 모자 디자이너였던 마담 펠릭스(Madame Felix)의 도제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고, 드레스 메이커였던 탈보트에게 재단을 배워 여성복 모디스트(Modiste)가 되었다.

1889년, 파리에 자신의 모자 매장을 열고 점차 고객을 확보해 나갔는데, 랑방의 모자와 헤어 장식들은 비즈 장식이나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되거나 때로는 아무런 장식이 없이 심플하게 디자인되었다. 1897년 태어난 그녀의 딸 마거릿 마리 블랑쉬(Marguerite Marie Blanche)는 랑방의 모성애와 창조성을 자극하였고, 랑방은 모자와 헤어장식을 디자인하면서 틈틈이 자신의 딸을 위해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입혔는데, 이를 눈여겨 본 상류층 고객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드레스를 부탁하게 되면서 랑방이라는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모자 가게의 단골 고객들은 랑방이 그녀의 딸을 위해 만들었던 독창적이고 섬세한 드레스들을 통해 랑방에게 내재된 재능을 보게 되었고, 아동복에 대한 고객의 계속된 요구는 1908년

첫 번째 아동복 컬렉션을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랑방은 모자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enfant’ 부서를 창립하고 아동복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 1909년 파리 의상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여성복 부서를 만들면서 비로소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로서의 공식적인 행보를 본격화 하였다. 현재에도 랑방 부띠끄가 위치하고 있는 파리 Rue du Faubourg 거리에 최초의 오뜨 꾸뛰르 매장을 열었으며, 191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Barille, E.:2007, Fukai, A.:2005, Buxbaum, G.(Eds.):1999)

1918년, 18세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가는 허리와 풍성한 치마가 강조된 ‘로브 드 스틸(robles de style)’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오래된 미술이나 회화에서 영감을 얻은, 엘레강스한 실루엣과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픽처 드레스(picture dress)’를 발표하였다.

1919~1926년에 이르는 동안, 랑방 하우스는 여성 스포츠웨어, 남성복, 향수, 모피, 란제리에 이르는 부서의 확장을 계속하였으며, 1923년에는 ‘랑방의 색조’를 섬세하게 완성시킬 염색 공장을 설립하였다.

1937년 국제 박람회와 1939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월드 페어(World Fair)에 참가하였고, 1945년 테아트르 드 라 모드(Théâtre de la mode)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전쟁 이후 오뜨 꾸뛰르의 국제적인 명성을 다시 펼치는데 일조하였다. (Barille, E.:2007)

1895년 결혼하고, 1897년 딸을 얻었으며, 1903년 이혼 후 1907년 재혼하였고, 1946년 79세를 일기로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2.2. 잔느 랑방의 작품세계

파리 오뜨 꾸뛰르의 흐름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고 경제나 사회 상황 등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랑방이 활동한 시기는 모더니즘(Modernism)이 대두되던 시대로 새로운 문화와 사상, 모던 디자인의 성장과 변혁의 시기였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 및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한 예술양식이 출현하였으며, 이후 소비시대로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시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들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폴 포아레(Paul Poiret), 마들린 비요네(Madeleine Vionnet), 가브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랑방은 패션에 대한 자유로움과 확신을 가지고 고

객과 패션을 리드했던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활동한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들에 비해 랑방은 어떠한 면에서는 스포트 라이트를 덜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상류층과 사교계의 이벤트나 유흥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던 것에 기인한다. 그녀는 화려한 사교계보다는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객들과의 필수적이면서 간결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예술가와 작가, 뮤지션들과의 작지만 친밀한 유대를 갖는 것을 좋아하였다.(Dean L.Merceron, 2007)

본 연구에서는 랑방의 작품 세계를 살펴봄에 있어 모자 매장을 열고 디자인을 시작한 디자인 초기(1889~1914), 1차 대전이 끝나고 보다 본격적인 꾸뛰리에로서의 활동을 펼쳤던 디자인 중기(1차대전 후~1920년대 : 전성기), 1930년대~2차 대전을 전후한 디자인 후기로 크게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2.2.1. 디자인 초기(1889~1914)

19세기말~20세기 초는 ‘벨 에포크(La Belle Epoque)’와 ‘풍요의 시대(The Age of Opulence)’, ‘에드워드 시대(The Edwardian Era)’라는 친숙한 명칭과 함께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이 정점에 도달하였고, 1907년 즈음하여 점차 화려한 패션의 종말이라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이르러는 전쟁의 수요와 피해로 인해 화려했던 패션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리는 등 패션 디자인과 소재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18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의 시간은 잔느 랑방이 매장을 열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시작한 시기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자 디자인 다음으로 그녀의 행보는 아동복 컬렉션이었으며, 어른들의 드레스 디자인 그대로, 섬세한 수공예적 장식을 살리면서 사이즈만 줄여 제작한 ‘엄마와 딸의 드레스’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림1] 1)

자녀를 위한 드레스 제작은 자연스럽게 여성복의 수요로 이어져, 1909년 랑방의 여성복 라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전시대에 비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발표하였고, 드레스의 심플한 실루엣은 정교하게 주름잡힌 네크라인과 소매, 비즈 장식과 자수, 그 외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들로 장식되어 돋보였다.

1) (左) 컬렉션 초대장의 일러스트레이션 (1912),

Dean L.Merceron (2007). LANVIN,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p.139.

(右) Le Mode誌에 실린 앙상블 (1913),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140.



[그림1] 엄마와 딸의 드레스

2.2.2. 디자인 중기 (1차대전 후~1920년대)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1920년대는 랑방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전성기라 할 수 있다. (Steele, V., 1988)

1920년대 전반 패션은 전통적인 페미닌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의 두 종류가 주도했다. (Mendes, V. & la Haye, A., 1999). 당시 랑방은 예술가와 산업가들, 파리에 들어온 외국인 고객층이 가장 좋아하는 꾸뛰리에 중 하나였다. (Grumbach, D., 1993) 랑방은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페미닌 스타일의 선구자로 활동하였는데, 리본과 꽃으로 장식한 종이 테피터, 오건디, 오간자 등을 소재로 의상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만의 색깔과 새로운 표면 장식을 통해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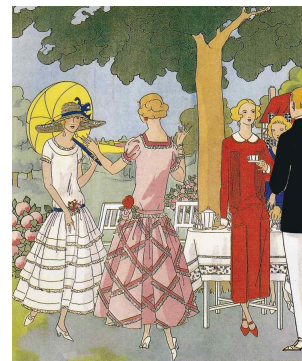
이 시기, 샤넬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기능적 디자인의 경향을 나타내었던 반면, 랑방은 로맨틱하고 수공예적인 디자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 다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철저한 장인정신과 화려한 자수 장식을 중심으로 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특징지어졌다. (Fukai, A., 2005)

모더니즘이 대두되던 시기, 페미닌 스타일을 작업했던 몇몇 디자이너들은 이국적이고 역사적인 것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랑방 또한 페미닌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페미닌 스타일 중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발목 바로 위에서 풍성하게 퍼지는 스커트로 구성된 '로브 드 스틸'과 '픽처 드레스'는 랑방의 대표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2]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로맨틱한 장식의 로브 드 스틸과 모던 스타일의 초기 작품인 가르손느 의상을 대비함으로써 로맨틱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의 공존 및 모던함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3]은 1920년대 랑방의 로브 드 스틸

로 적당히 파인 스코프 넥라인 (scooped-neckline), 슬리브리스 또는 캡 소매, 앞과 뒤가 납작하면서 양옆으로 여유있는 스커트 실루엣, 로맨틱한 색깔과 섬세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장식적 특성이 보여진다. 랑방의 로브 드 스틸의 주 고객들은 사교계에 데뷔하는 상류층 여성, 신부, 엄마가 된 젊은 여성들이었다. 랑방은 로브 드 스틸의 스커트의 폭과 길이, 프로포션과 소재, 디테일을 달리한 다양한 로브 드 스틸을 시기별로 발표하였다. 화려한 자수와 수공예적 디테일이 들어간 '엄마와 딸의 드레스(girls & ladies' dresses) 또한 여전히 랑방을 대표적 스타일이었다.

독창적이고 예민한 컬러 감각을 가지고 있던 랑방은 작품에서 더욱 완벽한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1923년 염색 공방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욕구의 실현이 가능했으며, 고유의 '랑방 블루' 컬러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랑방의 색채들을 작업하였다.

1919~1926년에 이르는 동안, 랑방 하우스는 모자와 아동복을 비롯하여 여성 스포츠웨어, 남성복, 향수, 모피, 란제리에 이르는 부서의 확장을 계속하였는데, 훗날 엘버 알바즈는 랑방은 단지 오픈 꾸뛰르 하우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패셔너블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인 첫 번째 디자이너였다고 평가하였다. (Vogue Korea, March 2010)



[그림 2] robe de style 과 가르손느 특의 일러스트레이션(1924)

3) (左) 1922년 겨울, 자수 장식의 blue taffeta robe de style Dean L.Merceron (2007). 앞의 책, p.72.

(右) 1924-1925년, Ivory & Black silk taffeta robe de style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89.

2) Mendes, V. & la Haye, A.(1999).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p.62.



[그림 3] 1920년대 robe de style

2.2.3. 디자인 후기 (1930년대~은퇴)

1920년대 말 발생한 뉴욕주식시장의 붕괴로 1930년대는 경제공황과 대량 실업으로 출발하였다. 1930년대 초반 꾸뛰리예들은 자수처럼 값비싸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장식 기술을 포기하게 되었다.(Mendes, V. & la Haye, A.:1999). 대신 랑방은 직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물 자체를 이용한 구조적 장식을 선보이는데, 이는 그녀의 고전적 우아미에 모던함을 더한 시도로 새로운 실험적 외관과 디테일의 개념을 보여주었다.

경제 공황이 잠시 회복되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1930년대 중 얼마동안 로브 드 스틸은 폭과 길이가 확대되고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같은 시기 직물의 공급도 여유로워 랑방의 로브 드 스틸은 보다 풍성한 외관으로 제안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도 아동복 라인은 여전히 진행되었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시즌별 컬렉션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어 등 랑방 하우스 내의 중심 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3.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앞서 랑방의 작품세계를 살펴본 결과, 랑방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는 비딩과 자수를 이용한 화려한 표면 장식과 이에 대비되는 단순하면서 고전적인 실루엣, 소재와 텍스처의 절묘한 조합,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 영감의 활용, 그리고 독창적인 색의 사용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고찰 내용을 토대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낭만적 단순미

랑방 디자인에 표출된 낭만적 단순미(Romantic simplicity)란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과 감성을 중시하는 장식적 표현성이 디자인에 공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잔느 랑방은 여자다움이 소멸한 기능주의적 모던 시대에 시류를 역행하는 듯한 로맨틱한 로브 드 스틸과 픽처 드레스[그림4]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이전시대의 과장된 화려함이나 가식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들 스타일은 18세기 파니에(Pannier)의 현대적 버전으로서 유연한 소재의 부드럽고 심플한 실루엣, 로맨틱한 컬러감, 과도하지 않은 섬세한 장식이 어루어지면서 여성의 인체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성을 상실한 ‘가르손느 룩’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에 친숙해 질 수 없는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지지자를 형성하였다.(허준, 1995)

랑방은 로맨틱한 감성과 단순함의 결합이라는 특유의 감성으로 아름답게 마감한 옷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전통적 의상에서 보였던 걸치레적인 사치와 구별되는 간소하고 엄격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다시 말해 ‘단순성’을 근본으로 하는 우아함을 표출하였다.

랑방은 로브 드 스틸의 여유로운 스커트를 하나의 화폭으로 두고, 그 위에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섬세한 비딩과 자수, 아플리케를 장식함으로써 간결함과 적절한 장식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3],[그림5] 픽처 드레스[그림4] 또한 아주 고풍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예술적이지도 않은 모던하고 쉬크한 스타일로 제안되어 인기를 끌었고, 1920년대 중반에는 투피스로 디자인되기도 하는 등 모던함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랑방만의 로맨틱함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3.2. 이국미

랑방의 예술적 감각과 창조 정신은 모더니즘 시대의 단순화되어가는 형(形) 앞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국적인 것과 미적인 것의 결합에 열정과 관심을 두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오프 꾸뛰르에서 아동복에 이르기까지 랑방 하우스 전반의 디자인 모티프, 소재, 색과 형(形)을 통해 창조적으로 융합되고 표현되었다. 즉 랑방 디자인에 표출된 이국미(exotic beauty)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 문양, 색상, 소재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롭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적 특성을 의미한다.

4) 1925년, 픽처드레스.

허준(1995), 파리모드 200년, 서울:유림문화사. p.147.

5) 1924년, 진주로 수놓은 black organdy robe de style.

Barille, E.(2007), *Lanvin*, Paris : Assouline. p.33.

랑방의 이국적 취향은 민족학적(ethnologic) 측면에 대한 관심과 다른 시대와 종교에 관한 관심으로 양분되었는데, 다양한 민족과 나라, 과거의 역사와 종교는 랑방 디자인의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서구적 감각, 곧 프랑스 패션의 보편적 미(美)와 융합되어 표현되었다.

랑방은 여행을 갈 때마다 현지의 책과 소재, 예술품 등을 수집하였고, 성당, 박물관, 갤러리 등을 방문하면서 색채, 모티프, 심볼 등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곤 하였다. 특히 비딩과 자수 장식의 디자인 영감을 전세계를 아우르는 민족지학적 요소들로부터 많이 얻었으며, 이를 소재별로 분류, 독창적인 조합을 시도하였다. 주목할 것은 랑방이 당시 활동하던 많은 디자이너들 중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상징화하고, 색을 유추하며, 장식의 모티프를 그리고 복식을 디자인했던 몇 안되는 디자이너였다는 것이다.(Dean L.Merceron, 2007) 대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과 무엇인가로부터 영감을 얻어 대상에 투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작업이므로, 랑방의 디자인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수집했던 17세기~19세기에 이르는 출판물과 과거의 복식들, 소재와 주얼리 등의 자료와 기록들은 그녀의 이국적 취향과 융합되어 비딩과 자수, 아플리케 장식의 모티프로 형상화 되었다.[그림5], [그림6]⁶⁾

19세기 말 ~20세기 초 프랑스는 동양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교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양적 요소들이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정유경, 2004) 그중에서도 랑방은 일본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적 모티프와 색의 사용, 직선적 실루엣, 의복의 구성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1920~30년대 랑방 디자인에 있어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이 두드러졌다.[그림 6]

역사와 종교에 관한 이국적 취향 중 랑방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시대는 중세 시대로, 중세 천주교 성직자의 복식은 랑방 디자인의 실루엣과 모티프 등에 즐겨 차용되었다. 특히 중세 천주교 성당의 스테인드글래스와 회화 작품, 과거의 역사적 복식과 공예품의 색은 랑방의 독창적 색조를 만드는데 주요한 영감으로 작용하였다.[그림7]⁷⁾

6) (左) 1926년, navy bkue silk crepe jacket, Dean L.Merceron (2007). 앞의 책, p148.

(右) 1925년, 잉어 모티프 자수 장식(부분),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154.

7) (左) Fra Angelico의 프레스코화(1433)에 묘사된 천사,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p.185.

랑방은 늘 색에 민감하였고, 색의 선택을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동시대 베이지색과 중간색 그리고 검정색을 많이 사용했던 샤넬과 대조적으로 옅은 핑크, 적자색, 선홍색, 옅게 녹색을 띤 짙은 청색 등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랑방만의 예민한 색채 감각을 보여주었다.(채금석:1995) 특히 그녀가 즐겨 사용했던 블루 컬러는 ‘랑방 블루(Lanvin Blue)’라는 고유의 명칭을 탄생시키며 독창적인 색깔을 표현하였다. 랑방 블루의 색깔은 Fra Angelico의 프레스코화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견해와 중세 가톨릭 성당의 스테인드글래스 중 코발트(cobalt) 색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Dean L.Merceron: 2007)



[그림 4] 픽처드레스 (1925)

[그림 5] 진주로 장식한 robe de style(1924)



[그림 6] 에스닉한 영감에 의한 디자인



[그림 7] 종교적 영감에 의한 디자인

(右) 1939년, ‘Lanvin blue’ silk crepe dinner dress,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184.

3.3. 실험적 장식미

잔느 랑방 디자인에 보여지는 실험적 장식미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랑방의 디자인 활동 후기에 나타난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직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영향 하에서, 이전시대 보다 정착된 모던함을 바탕으로 직물 자체를 이용한 새로운 실험적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표출된 미적 특성이라 하겠다. 이는 부분 디테일에서 시작하여 전체적인 외관 및 디자인으로 확대되었다.

랑방의 디자인 활동 초기, 복식의 표면 장식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섬세한 수공예적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비딩과 자수 장식이 중심이 되었으며, 진주를 비롯하여 각종 비즈, 반짝이는 금속조각, 산호, 조개가루, 금사, 은사, 리본, 야자수에서 뽑은 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화려한 문양을 만들었다. 이는 절제되고 단순해진 실루엣에 로맨틱한 감각을 더하는 것으로 초기 디자인의 미적 특성으로 언급할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랑방의 섬세한 장식 표현 경향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변화하였는데, 1920년과 192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던 진주와 자수의 사용이 점차 감소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1930년 이후 랑방의 장식은 표면에 다양한 장식적 재료를 덧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랑방은 직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실험을 거듭하며 후기 디자인에 실험적 장식미로서 표면의 미를 부각하였다. 그녀는 직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Seaming Technique', 곧 의복의 솔기 및 구성과 연결되는 구조적인 디테일을 실험하였다. 직물 자체를 자르거나(cut out), 구멍내거나(punchwork), 엮거나(loop), 누비는(needlework) 직물 자체를 이용한 장식(self-fabric detail)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강한 비주얼 임팩트를 전달하는 실험적 장식미를 보여주었다.

[그림8]⁸) [그림9]⁹)의 두 디자인은 needlework, cut out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직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적 장식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20세기 중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랑방 스타일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self-fabric detail을 활용한 디자인



[그림 9] self-fabric detail을 이용한 실험적 외관

4.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초, 우아하고 여성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오피 꾸뛰르를 이끌어 온 잔느 랑방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잔느 랑방은 패션을 라이프스타일로서 본 최초의 디자이너였으며, 여성복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복과 스포츠웨어, 남성복, 모피, 향수, 라제리, 인테리어에 이르는 넓은 분야로 확장하면서 보다 현대적인 개념의 토털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으로는 첫째, 낭만적 단순미, 둘째, 이국미, 셋째, 실험적 장식미가 논의되었다. 낭만적 단순미는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과 감성을 중시하는 장식적 표현성이 한 디자인에 공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랑방 디자인에 나타난 심플한 실루엣과 과도하지 않은 섬세한 장식 표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국미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 문양, 색상, 소재

8) 左) 1939년, 샌프란시스코 전시회에 출품된 흰색 오간디 리본 장식 드레스, Barille, E.(2007), 앞의 책 p.59.

(右) 1932년, self-fabric detail이 들어간 silk crespé evening dress, Dean L.Merceron (2007), 앞의 책, p.196.

9) 左) 1938년, evening jacket,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210.

(右) 1933년, silk velvet kimono-style jacket, Dean L.Merceron (2007), 위의 책, p.261.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롭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적 특성을 의미하며, 랑방의 다방면에 걸친 이국적 취향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감성과 시대적, 종교적 감성이 복식의 디자인과 색으로 표출되었다. 실험적 장식미는 랑방 디자인 후기에 나타난 특성으로 직물 자체를 이용한 디테일과 표면 장식, 이를 통한 전체적인 외관의 변화를 통해 고찰되었다.

본 연구는 잔느 랑방 하우스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 여성복과 일부 아동복을 주 대상으로 함으로써 남성복 및 기타 제품 라인에 제한을 두었다는 한계가 따른다.

엘레강스와 여성스러움, 단순한 실루엣과 섬세한 수공예 작업을 통한 고전적 스타일의 대명사였던 랑방 하우스는 2001년 임명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엘버 알바즈를 중심으로 보다 젊고 창조적인 이미지로의 변신을 꾀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과거 오피 꾸뛰르를 기반으로 시작된 패션 하우스가 현대의 기업화된 패션 브랜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하우스의 전통적 아카이브와 시대적 트렌드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구현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패션 하우스 랑방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잔느 랑방 사후, 랑방 하우스를 이끌어 온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활약 및 그들의 성공적인 브랜드 계승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주희, 이진민(2010),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 '한국디자인포럼' Vol.28. 221-230
- 이해연(2005), '패션브랜드 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2004), 20세기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금석(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허준(1995), '파리모드 200년', 서울:유림문화사.
- 'VOGUE KOREA', March, 2010, 470-483
- Baudot, F.(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NY: Universe Publishing.
- Barille, E.(2007), *Lanvin*, Paris : Assouline.
- Buxbaum, G.(Eds.)(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London;NY: Prestel Verlag.
- Dean L.Merceron (2007). *LANVIN*,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 Fukai, A.(Eds.)(2005). *FASHION - A History from 18th to the 20th Century- Vol.1/2*, Köln: Taschen.
- Grumbach, D. (1993), *Histoires de la mode*, 우종길 역(1994), '패션의 역사', 서울 : 도서출판 창
- Jones, T. & Rushton, S.(Eds.)(2005). *FASHION NOW 2*, Köln: Taschen
- Mendes, V. & la Haye, A.(1999).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 Steele, V. (1988). *PARIS FASHION-A Cultu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 랑방 홈페이지 <http://www.lanvin.com>